

나주 미래산단 조성 청신호

시의회, SPC 20% 출자동의안 통과 실질적 조성인가 인화 가능성 높아져

나주시의회가 특수목적법인(SPC)인 미래산단(주)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07년 이후 추진 과정에서 투자사 포기, 검찰 수사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사업이 재게도에 오를 수 있을 지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의회는 미래산단(주)이 20% 출자지분을 참여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나주미래일반산단의 조성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특수목적법인(SPC)인 미래산단(주)의 자본금은 1억원 규모다.

시는 SPC의 출자동의안 통과를 통

해 의사결정권 행사 등 실질적인 관리강화로 조성인가 인화와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 활성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업입지법 등에 따라 6%의 적정 이윤을 조성원가에 반영해 민간투자사에 보장해야 했다”며 “이 적정 이윤을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나주시에 귀속시켜 재투자할 경우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과 연관된 전자부품, 컴퓨터, 금속가공, 기계 및 장비제조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나주시 동수동과 왕곡면 일원 178만5000㎡에 조성될 예정이다. 완공 시기는 2015년이다.

민간투자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미래산단은 국비 354억원, 시비 46억원, 민자 2250억원 등이 투자될 예정이다. 민간 투자 과정에서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 논란이 일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현재까지 토지보상은 99%가 완료되고 문화재 시·발굴 등 행정적인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공사 전 체 진척률은 35%를 보이고 있다.

시는 미래산단 조성으로 인해 384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306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와 함께 1만1000여명의 직간접적인 고용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약초의 섬’ 완도 약산에 희귀식물 가득

황금후박나무·하수오 등 자원·기능성 식물 13종 발견

‘약초의 섬’ 완도 약산에서 황금후박나무 등 다량의 희귀 및 유용식물이 발견됐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산림자원조사단은 최근 완도 약산에서 식용과 약용식물의 생태환경 및 집단 서식지를 조사해 황금후박나무와 천문동 등 33종의 자원식물과 기능성 분석용 식물인 하수오 등 13종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가정 황금후박나무는 일 일부분이 누런 황금색을 띠고 있어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사단은 유전적 변이 인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의한 변이 종인지 지

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후박나무는 상록 교목으로 잎이 푸른색을 띠고 있다. 나무 외피는 약재로 활용된다.

또 삼채소와 위장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 식물인 변초 집단 자생지도 발견했다.

야생에서 희귀하게 발생하는 무늬(사피성) 곰솔 2개체도 발견도 조사단의 성과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득 작목 개발과 자생지 확보, 유전자원 보전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연구소 직원과 산약초 전문가, 관련 분야

교수, 전공학생 등으로 산림자원조사단을 구성, 희귀 및 약용식물 발굴 등 산림식물자원 조사에 나서고 있다.

윤병선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은 “전남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섬과 야산 등 깨끗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며 “이 가치를 재조명하고 식용과 약용식물을 활용해 자원식물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약산(藥山)은 약초의 섬으로 불릴 정도로 약용식물이 많이 자생하는 곳은 특히 삼지구엽초를 먹고 자란 흑염소가 유명하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황금후박나무’



‘하수오’



들이 들어도 무거운 ‘71.5kg 초대형 슈퍼호박’

합평군은 지난 10일 열린 ‘슈퍼호박 선별대회’에서 무게 71.5kg인 이현기(53·충북 보은군)씨의 호박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씨는 “품종이 크고 좋은 것을 골라 잘 숙성된 퇴비를 듬뿍 주며 정성을 들인 결과”라며 “100kg짜리 호박도 있었는데 썩어버리는 바람에 출품 못했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총 25점이 출품돼 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이 선정됐다.

<합평군 제공>

돈버는 전남개발공사... 2년연속 흑자 눈앞

상반기 당기순이익 182억 순항... 신규사업 발굴 역점

전남개발공사가 2년 연속 흑자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날자로 취임 100일을 맞은 전승현 사장이 재무건전성 강화와 수익창출, 조직개편, 신규사업 발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등 고강도 경영체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2년 연속 흑자경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156억 원의 달성에 힘입어 ‘안전행정

부 주관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4위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결산에서도 당기순이익 182억원으로 경영상황이 순항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전 사장 지휘아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남약골프클럽 및 영산호휴게소 부지 등 자산매각을 통한 강도높은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단기 공사채 상환 및 자금관리 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등 ‘지속가능 경영기반’ 확충

에 노력하고 있다.

수익 확보방안으로 한옥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의 경우 홍보 및 관측 활동을 강화하고 인접 관광지와 연계 상품개발, 여행업체·기관·기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

실적부진 사업지구와 경도 콘도분양권 활성화를 위해 ‘고객맞춤형 신상품 개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중이며 2013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본부별 업무보고, 경영목표 달성 보고회(2회) 등을 개최, 내부결속을 다졌다.

전 사장은 조직 내 ‘신규사업팀’을

새롭게 꾸리고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2본부, 2실, 3사업단, 10팀(1본부 3팀 폐지)으로 조직을 슬림화하고 기능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해 조직의 체질 개선 등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전 사장은 “차별화된 신성장 동력 발굴과 공익부분의 수익 극대화, 재무건전성 강화 등을 통해 공사의 지속성장 기반을 다지고 공익과 수익이 조화를 이루는 지방공기업의 성공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

목포홍일고, 전국 고교평가 전남 1위·전국 5위

목포홍일고등학교(교장 장정석)가 최근 전국 고교평가에서 전남 최고의 학교로 부상했다.

홍일고는 13일 “한 일간지에서 전국 고교 화력수준과 교육여건, 학부모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89.44점을 받아 전남 1위, 전국 5위의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남 5위의 점수를 받았던 홍일고는 그동안 학력 신장에 매진한 결과 이 같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8월 민주당 박용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13학년도 수능 전국성적 상위1% 학생 수에서도 전남 110명 중 홍일고 학생 11명이 차지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주관 ‘전국성취도 평가100대 고교’에 지난 2011년과 2012년 전남에서 유일하게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홍일고 장정석 교장은 “교사들의 열정과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기숙사 운영 등 사교육을 배제한 공교육에 힘쓴 결과”라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문화원, ‘대한민국 문화원의 날’ 대상 수상

목포문화원(원장 이춘용·사진)은 13일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충북 청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원의 날’ 행사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수상은 한국문화원 창설 70년 역사상 광주, 전남·북에서는 최초 수상이어서 쾌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대회는 전국 229개 문화원이 모두 참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시상하는 행사로 문화원으로서 최고의 영예로 꼽힌다.

목포문화원은 지난 추석에 목포역

광장에서 진도 해외국악공연단을 초청해 목포 시민과 귀성객을 위한 국악대잔치를 벌였다. 이날 대잔치에는 국회 의원 3명과 목포 시장 등 시민 4000여명이 운집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이번 대회에서 “지방문화원의 위상을 크게 제고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목포=고구석기자 yousou@



착한 음식을 만드는 정성 채널A의 마음입니다.

‘이영돈 PD의 먹거리X파일’은 불량 먹거리를 고발하고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하는 ‘착한식당’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직한 노력으로 원칙을 지키는 식당 주인의 마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채널A의 마음입니다.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채널A (먹거리X파일) 이영돈 PD와 착한식당 (뽕드뽕뽕)의 이호영 대표

CHANNEL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채널A www.ichannel.a.com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IPTV 18	